

장편小説 **천년여행** (제1권) 조효근

알로펜의 아시아

> 15 <

— 에돔사에서 당태종 궁궐까지

“어머니, 어찌 제방에도 들어오시나요?”

안토니는 놀랐다. 안토니가 놀라는 것은 당연했다. 언제부터인가 안토니 모친 사라는 안토니의 방 근처에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안토니의 기억으로는 그가 아저씨로 호칭하는 아버지가 어머니 곁을 떠나버린 때부터였으니 7년 정도는 되지 않을가 생각되었다.

“왜, 내가 문을 열면 안되니?”

“아니예요, 어머니!”

알로펜이 씩씩하게 말했다. 알로펜은 사라가 친근하게 느껴졌다. 육신의 체온이 느껴진다 할까. 어머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인지 그는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가 눈물샘이 시큰했다.

“아이고, 어머니 소리 한 번 씩씩하네. 그래, 내가 이제는 아들을 돌이나 얻었네 그려. 고맙다. 알로펜.”

“들어오실 거예요, 안들어오실 거예요.”

안토니의 투정에 아랑곳 하지 않고 사라가 방문 안으로 들어왔다. 아들의 방을 좌우로 힐끗힐끗 두세번 훑어보던 그녀는 알로펜 곁에 앉았다.

“어서들 말해보게. 조금 전에 들으니 알로펜의 한말이 인상적이구먼. 그래 인생이란 100년을 살고서도 은총을 기다려야 한다고..?”

“네, 어머니. 저희는 조금 전에 마니교 창시자 마니와 예수님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지요.”

“또, 마니냐? 안토니 너는 언제까지 마니 마니를 입에 달고 다닐거냐.”

모친 사라의 통명스런 말이었다. 냉기가 서려 있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도망친 아저씨 생각나서 그러세요. 내가 제2의 마니입니다. 제2의 예수가 되었으면 하긴만 거기까지는 힘이 미치지 않네요.”

“어, 응. 저 애가 이제는 머리가 어찌 되었구먼!”

“어머니, 말씀 함부로 하시는거 아닙시다. 내게 하늘이 내려와 계십니다.”

“어 저저저, 저놈이. 어쩔 지 에비를 저렇게 닮았을까? 아이고 아이고...”

안토니의 모친은 두 주먹 불끈 쥐고 자기 가슴을 몇 번 쥐어박더니 밖으로 나가 버렸다. 알로펜 역시 돌발사태 앞에서 어찌해야 할 비를 모르고 있었다. 하늘이 내려와 있다지 않은가. 어린 녀석이 맹랑하고 당돌했다.

“알로펜 형, 형 또한 왜 그리 멍해있습니까? 내 말이 틀렸어요?”

“그래, 틀렸다. 틀렸다고 보다는 너무 성급해...”

“아이쿠 형, 형은 알고 계시는군요? 하늘이 내게 내려오신 뜻을 말입니다.”

“그래 알지. 안토니 뿐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가슴에는 하늘이 내려와서 동지를 틀었지. 그러나 알로펜은 아닐거야.”

“왜, 왜요?”

“믿는 자들에게만 이라고 하셨지요.”

“그건 예수쟁이들의 독선이지. 전하 모든 인간의 하나님아 편가르기식으로 어찌 예수쟁이들로 율타리를 칠라구...”

“편가르기가 아니라 창조주의 절차 과정이지. 안토니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면 해결되는 것이

야.”

“창조의 절차라니...”

“그래, 창조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

“그건 억지요, 거짓이요, 위선이라니까. 어찌 형 마저 꼭 막혀 있어요? 안타깝군요.”

“더 고민해 보게나. 그런데, 어머니께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괜찮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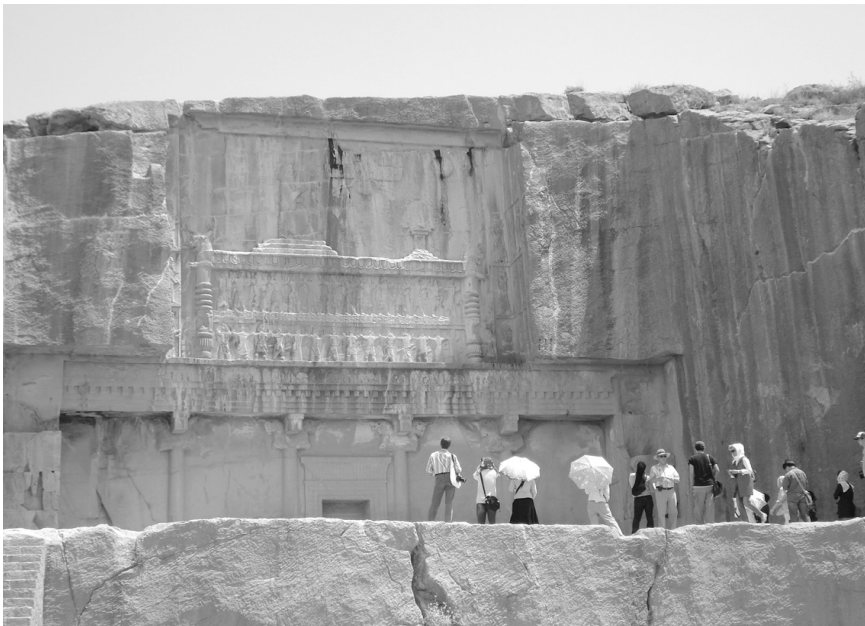
“왜, 화피하는거요. 형, 알로펜 형.”

“화피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말이 도무지 낯설게 들려서 말이야. 억지니 거짓이니 위선이니 해도 되겠으나, 설사 그렇다 해도 너무 성급하게 서둘지 말아야 한다. 세상은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형은 왜 그렇게 넉넉합니까? 따로 믿는 구석이 있는가봐.”

“그렇다. 나는 따로 믿는 것이 있다. 성경 말씀을 바로 읽어라. 서두르지 말고 말야. 또 내가 제2의 마니요, 예수라는 말 따위는 함부로 할말이 아니란다.”

“.....”



알로펜의 말에 당구를 하지 않는 안토니는 자기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다. 알로펜은 슬그머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밤 하늘의 별들이 수북히 쌓여 있다. 평화로운 밤이다.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갈 곳이 없었다. 낮익지 않은 곳인데 함부로 발길을 걷기가 조심스러웠다.

“누구?”

안토니의 모친이었다.

“네, 집니다. 알로펜. 밖에 계셨군요.”

“응, 그래요.”

사라가 자기 곁으로 다가오는 알로펜의 등허리를 토닥이며 자기 가까이로 끌었다.

“알로펜, 나하고 동네 한바퀴 돌아볼까요?”

“괜찮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거든요.”

“조심스럽긴요. 생각보다 평화로운 마을이죠. 그래도 수도자들이 모인 곳인데요.”

그들은 함께 걸었다.

“알로펜! 내가 자네 아버지 교회에 다녔다 했지.”

“네, 그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왜 보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아는가? 수백명 신자들이 예배 때만 몰려드

는 데, 더구나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다니지도 않았으니 잘 몰랐겠지.”

“얼마동안 다녔어요.”

“글쎄, 한 3년. 떠난지도 오래되었네. 크데시몬 떠난 후 2년쯤 지나서 안토니를 낳으니, 아니 그때는 알로펜은 껌막이었겠는데...”

“앗 하! 그런가요.”

알로펜은 웃다가 안토니 모친의 어깨를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 여기 모여 사는 남녀들은 너무 한가해요. 특히 도덕적으로 긴장감이 없어보이구요.”

“한가한거야,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지요. 먹는 생활은 교주 선생이 총당해 주고, 처자식 없고 웃음은 것도 신경쓰지 않으니 전구생활들이지.”

“그렇겠지요. 웃어야, 더 많이 벗고 싶어서 안답이니 좀 더 있으면 다 벗고 사는 사람이 나오겠지요.”

“아니야. 지금도 벗어. 한 여름엔 옷에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사람들이 많だね.”

“그래요, 거 불만하겠군요.”

“왜 그러냐? 알로펜, 나는 여기서 수도생활 하는 이들을 이해한대. 모두들 대체로 경건한 사람들이야. 더 많이 벗고 싶어서 몸부림 하는거 동정이 가기도 한대네. 얼마나 자기의 위선이나 허영이 못마땅했으면 차라리 나체의 모습을 원할까.”

“아니, 어머니! 정말이세요.”

알로펜은 안토니의 모친의 위아래를 자세히 살피고 있었다.

“이 사람, 내가 그렇게 한다는게 아니야. 뭘 그렇게 훑어지게 보는거야. 내가 벗고 있으면 좋겠어.”

“아니예요. 어머니. 너무 개방적이시고 너그러우시네요.”

“내가 이곳에서 몇년 산지 아는가? 10년이 넘었어. 여기 사는 사람들 중에 10년 경력자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10여 년 지켜보았지만 여기 사람들 중에는 부부가 들어왔다가 각기 따로 생활 하는 이들도 있고, 남녀가 짝을 짓기도 하지만 아이를 낳지는 않던구먼. 안토니만 하나 나왔지.”

“뭘,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안토니가 언제 그들 가까이로 와있었다.

“언제 왔어.”

알로펜이 안토니의 손을 잡아서 자기 곁으로 이끌었다.

“난 어머니의 결심에 따라서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왔잖아. 처녀가 왜 낳고 싶었겠어. 그러다가는 율법의 돌팔매에 죽어갈 것인데 말이

야.”

“안토니, 너 말 함부로 계속 할거냐!”

그의 모친의 말에는 노여움이 묻어났다.

“어머니, 나는 곧 떠납니다. 혼자 계시게 하고 떠나니가 쉽지 않으리라 했는 데 어머니의 하나님께서 알로펜 형을 보내주신 거예요. 앞으로는 형이 어머니의 위로가 되어주실 겁니다.”

안토니는 자기가 결정하면 그대로 된다는 식으로 지껄었다.

“너, 정말이니?”

“그럼요. 예수께서도 열두살에 부모 슬하를 떠났더군요. 저는 예수 같은 사람이 되어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안토니는 경충경충 뛰면서 즐거워 했다. 예수처럼 산다는 것이 매우 즐겁다는듯이.

작가 조효근

- '76년 『월간 문학』 신인상 소설 부문 입상.
- 대학에서 세계교회사 및 종교사 37년째 강의.
- 본지 발행인.



유라시아 기독교 2000년 >15< 조효근

—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대속의 실제

1)네로와 도미티안의 박해

기독교가 교회 형태를 지닌 후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받기를 시작한다. 박해는 제1차 기간으로 AD 64년 네로황제와 도미티안 말기(AD 97년)까지 계속 된다. 크게 구분하여 제2차(AD 98~249년), 제3차(AD 249~312년)로 나뉜다.

여기서는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부분을 취급하겠다. 아우구스투스 이후 티베리우스(AD 14~37년), 가이우스 칼리굴라(AD 37~41년), 클라우디우스(AD 41~54년) 황제에 이어 네로(AD 54~68년)가 황제 위에 올라 초기

러나 그는 단명으로 죽고 그의 동생 도미티안(AD 81~96년)이 황제 위에 올랐다.

그는 황제 위에 오르자 곧바로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격상시켰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네로를 능가하는 솜씨를 보여주었다. 그는 통치기간 15년 내내 박해를 즐겼다.

도미티안의 박해는 터틀리안이나 이레니우스의 자료에 의해서도 드러나 있다. 사도 요한과 도미티안 관계는 유명하다.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이 죽은 뒤에도 살아서 활동했음이 이레니우스의 이단 반박의 글 제2권에 나타나 있다.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이 죽은 후, 밧

카타콤 시대 ①

에는 어린황제(16살)였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잘 감당하였다. 그러나 자츄 정세 판단에 착오를 일으켰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네로의 광기는 극에 달했다”고 평했다. 심지어 그는 자기의 생모와 아내 등 많은 친인척들을 죽이는 등 폭군노릇을 했다.

더구나 AD 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은 기독교 역사의 큰 기폭으로 남게 되었다. 네로는 로마의 화재사건을 기독교인들의 방화로 몰고 갔다. 이때의 박해가 로마의 공식 박해의 시작이다.

유세비우스는 AD 64년 7월 “네로는 자기의 통치력 강화의 수단으로 기독교의 하나님과 일전을 치루기로 했다”고 제국의 위엄을 갖추는 주요한 계기로 삼고자 했으나 민심은 네로를 지지해주지 않았다. 네로가 방화범이라는 여론도 있었으나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고, 네로는 로마의 화재 이후에도 민심을 이끌지 못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기독교를 향해 “매우 위험한 미신” 또는 “사악한 집단”이라는 용어 사용에서 기독교가 당시 로마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를 짐작케 한다. 이같은 당시 분위기로 볼 때, 민심을 얻어보려는 네로가 기독교가 방화범이라고 했을 수도 있다. 로마의 화재는 로마제국 안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독교 신자를 박해로 몰고 갔으며, 그때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를 불러왔다.

박해자 네로는 30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로마는 혼란기 1년을 거쳐서 예루살렘 정복군 총사령관 베스파시안(AD 69~79년)이 황제가 되고, 예루살렘 정복군 사령관은 베스파시아의 아들 티투스장군이 사령관직을 수행, 유대와 예루살렘을 로마의 완전 속방으로 만든다.

티투스는 그의 부친 베스파시아의 선정으로 제국이 안정된 후, 부친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었다.(AD 79~81년) 그

모ష에서 에베소로 들어왔다. 그는 교회들을 돌보거나 직분자를 임명하는 등 노년에 이르러서도 주님의 교회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

도미티안이 비명에 가고, 네르바(AD 96~98년)가 황제 위에 올랐다. 그는 6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다. 그는 독일지역 장수 중 트라야를 선택하여 양자를 삼았다. 트라야는 스페인 출신으로 하드리아누스와 함께 제국의 현명한 군주 5명에 든 인물이다.

황제의 친아들이 아니고 이미 성숙한 인물 중에서 양자를 선택하여 황위를 승계한 탓인지 성군(聖君)까지는 몰라도 현군(賢君)이 여럿 등장했다.

로마제국은 트라야 황제가 등장한 후 각 지방까지 안정되고 제국이 평화롭고 문화의 발전도 이에 뒤따랐다.

트라야 황제(AD 98~117년)부터 기독교 역시 외부로부터 오는 긴장감은 있었으나 전국적인 박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기독교 신자 색출을 위하여 때때로 이식 박해는 없었으며, 신자들이 당국에 의해서 들통이 났더라도, 설득과 회유의 기간을 가지고 대응하였다. 예를 들어 당국과 비밀(지하)교회간의 절차를 밟아서 단계적 대응을 했다. 조사와 심문을 철저히 했다. 당국과 교회로서도 신자의 수준과 그 성격을 분류할 수 있는 자료를 삼을 수 있었다.

트라야 시대 참된 신자분류를 당국이 해주는 기준은 이렇다. 신자됨이 이유가 되어 붙잡혔다해도 그가 신자임을 분명히 밝히는 자, 신자이지만 당국의 회유에 굴복하는 자, 고발되었을 때에는 신자였으나 현재는 신자가 아니라고 밝히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처벌하는 방법이다.

*더욱 생생한 역사강의와 요한복음 강의를 격주(2, 4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사 세미나실에서 저자의 직강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조효근 장편소설

프랜시스워렘

성 프랜시스가 가르쳐주는 이슬람 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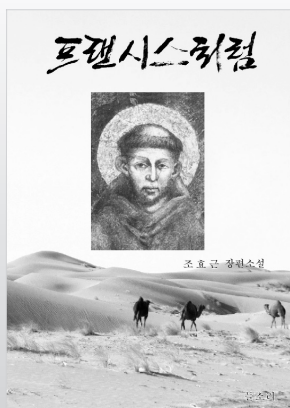
탁발(托鉢)과 거리 전도를 원칙으로 13세기 세계 기독교를 살려내고자 했던 전투적 수도자 프랜시스의 인생!

교황이 탁발과 거리 전도의 선두에 서야 한다고 외쳤던 본격적인 기독교 개혁자!

평생 이룩한 프랜시스 수도단을 세속적 실력자에게 빼앗겨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섯개 상처(五傷)에 도전 허락을 받아낸 성자!

제5차 십자군 전쟁터에 단신으로 뛰어들어 이슬람 총사령관 알 카밀(AI-Kamil). 술탄을 감복시켜 십자군 전쟁을 사실상 종결시킨 숨은 이야기. 성 프랜시스의 이슬람 극복 전략까지...

신국판 | 340쪽
값 12,000원



성 프랜시스 생애를 소설화 하다

프랜시스는 13세기 로마제국 교회의 전성기에 기독교 절망을 말했고, 예수의 재림,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변화, 예수의 가난과 절대 사랑의 실현을 위해서 그 시대 로마의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탁발과 거리 전도를 선두에서 지휘했던 인물이다.

교황부터 바릿대를 들고 탁발(빌어먹는 식탁) 행에 나서야 하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파격을 제시했던 인물이다.



조효근 작가

도서출판 들소리

서울시 종로구 연경로 195-21
☎ 02) 3676-3032, 4~5 / FAX : 02) 3676-3037